

## 이흥량 국장 정년 퇴임

35년간 협회와 함께 생사고락 나눈 협회 역사의 산 증인



~1980), 전남·서울지부 사무국장 ( ~1999)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전라남도 사무국장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다.

수여 받기도 한 이국장은, 재임하는 동안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담당 지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강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이끌었으며, 평소 직원들에게는 온화하고 이hestim 많은 상사로 평가받기도 했다. 가족으로 부인 임순자 여사와 1남 2녀가 있다.

35년여 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 온 이흥량 사무국장이 지난 6월,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

지난 66년 전라남도지부에 입사한 이흥량 국장은, 전남지부 사업·서무과장, 본부 총무부 서무과장·업무부 지도과장, 전북지부 서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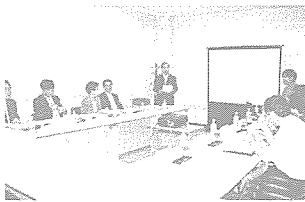
입사 이래 이국장은 지역 주민 기생충 퇴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성인병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사업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 94년에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 포장을

한편 건협은 지난 6월 30일, 가족·친지, 도 및 지역 보건관계자, 유관단체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지부에서 이국장의 정년퇴임식을 갖고 이국장의 협회 발전에 대한 기여에 감사하고 퇴직 후에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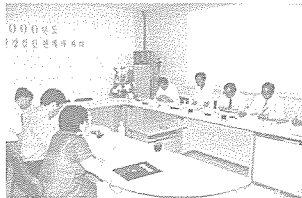
◀36

### 건협, 건강증진전문위원회 회의 실시



지난 7월 14일 협회는 제 1차 건강증진자문위원회 회의의 통해 우리 협회의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는 남정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개발센터장), 박노례(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상무이사), 박용주(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장), 서정돈(성균관대의대 학장), 이준상(국립보건원장), 하성미(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홍명호(고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흡연자건강검진관계자 회의



협회는 지난 7월 14일 오후 3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일환인 흡연자 건강검진 사업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인제대의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서홍관 교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창규 서기관, 협회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의 고른 보건으로 혜택 실현과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위한 흡연자 대상 건강 검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 박준영 건강증진국장, 대구지부 남서중 국장 보건교육사 양성 과정서 특강



본부 건강증진국 박준영 국장과 대구지부 남서중 국장이 지난 7월 3일과 13일, 이화여대 강당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있었던 보건교육사 양성 과정에서 민간단체 보건교육사업 현황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주관으로 실시된 보건교육사 양성 과정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되었으며 이화여대 보건교육학과, 경산대 보건학부, 계명대 공중보

## 서울지부, 건물 증축 및 외벽 단장 마쳐



서울지부가 건물 증축 및 외벽 단장 공사를 마쳤다. 서울지부는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4층 일부(110여 평)를 증축하여 대강당과 회의실을 마련하고, 내원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또 대리석으로 건물 외벽을 단장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었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 7월 28일 새로 설치된 대강당에서 임한중 회장



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과 전임 사무국장, 지역 인사,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건학과 학생과 일선 보건교육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 부산 지부, 보건 관계자 초청 간담회 실시

부산 지부는 지난 6월 23일, 동래구 및 동부 교육청 소속 유치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원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검진 방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 낙동강 하류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검출 빈도 높다

낙동강 하류에서 잡히는 민물고기에서 간디스토마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협 부산지부는 지난 98년과 지난해 낙동강 하류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민물고기인 참붕어 등을 10마리씩 조사한 결과 참붕어의 경우 간디스토마 감염률이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붕어나 피라미, 잉어, 납지리, 모래무지 등보다 참붕어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치료제가 발달되어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도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반복 감염되면 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다.

간디스토마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을 때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서도 식기 등에 붙어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 음식점에 대한 위생 감시 강화와 함께 민물고기 생식을 지양하는 등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 경남지부, 보건관계자 초청 간담회 실시

경남지부는 지난 6월 28일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장외 시군 건강증진담당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교육 추진 협조 방안, 건강증진사업 연계추진방안 및 상호 협조체계유지 방안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 광주·전남 지부, 유아원생 협회 견학 및 건강 검진



지난 6월 12일과 16일 운남 어린이집 원생 160여명이 광주·전남 지부를 방문하여 협회의 검진 시설을 견학하고 혈액·구강·요충 검사 등 건강 검진을 받았다.

### 충북지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금연 교육 실시



충북지부에서는 증평 소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

### 전북지부, 여성 농민 무료 검진

전북지부는 지난 7월 6일, 전라북도 여성 정책관실과 여성 농민회가 주관한 2000년도 전북 여성 농민회 문화 축제에서 농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